

# '인간 중심' 시장경제로 가자

###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문화일보·경희대 NGO 대학원 공동주최 특강

#### ③ 사회적 시장, 생명의 경제: 시장사회를 넘어서

|| 김세기초 우리는 탈냉전의 화해와 평화, 참여와 연대 그리고 생태주의의 새로운 시민공화국으로 가는 긴 역사적 여정의 출발점에 있다. 탄핵 대 쫓발의 대결은 쫓발의 승리로 끝이 났다. 광장의 쫓발은 새로운 민주적 시민공동체를 향한 시대 정신의 근본 징표가 되었다.

쫓발에서 당시는 어떤 희망을 보는가. 나는 광장의 쫓발에서 우리 국민, 우리 이웃들의 분노를 날려서, 유래없이 새로운 시민적 주체성의 각성과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열망을 본다. 냉소와 탈정치화를 거역하는 이 엄청난 대전환의 물결이 아발로 시민 평화 국가로의 대한민국 재성을 가져올, 시대 전환의 근본 동력이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녹색 시민공화국의 길은 고통 풀린 무책임 시장사회가 강제의 길에 관한 대화와 유연화의 병행, 효율-경쟁-성장 트로이의 지상 명령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는 제2 대전환기 글로벌 신자유주의, '세계적 규모의 금융 주도 축적 체제'는

편승-이행민기자 changlee@

사회의 감시와 문화적 규범에서 이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감시로부터도 이탈되어, 이중이탈된(double-disebbed) 국도의 반(反)사회화적 무책임 경제다. 금융 투기 천국과 불안한 거품의 누적, 그

#### 주권전도된 돈-인간 '탈상품화'로 바로잡아야 '시장=악의 근원' 인식 버리고 사회통합 추구

라고 반발하는 위기가면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과 세계의 전반적인 상품화 경향, 성장과 가치 중심이 자기 목적화하고 돈이 주인 행세를 하는 우리의 삶과 경제 사이, 인간과 돈 사이의 주권 전도다.

현권에서 과잉 성장-과잉 소유-과잉 소비와 다른 한편에서 광범한 배제-박탈-심외의 위기 사이의 심각한 모순, 상품화와 소유 개인주의, 원자주의와 도구주의가 합물된 인간적 욕구의 소외와 삶의 의미 상실, 자치력과 연대력 상실의 질병, 그리고 반지구적인 생태 위기와 다중 위험 사회의 상황이 문제다.

성장 몰신과 시장 몰신주의는 인간됨의 발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사회에 재통합하는 새로운 발전의 사고로 발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노동, 토지-자연, 그리고 화폐 및 자본의 탈상품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탈상품화 운동은 세계, 국민국가, 그리고 지역의 각 수준에서 시장과 자본 운동의 환포와 무책임에 대해 민주적 통제력을 확보하면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나아가는 일, 양과 질에 집착하는 거대주의를 벗어내는 일, 노동노예(異都不二)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

일 등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이같은 인간과 세계의 탈상품화 운동의 기반 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신장(empowerment)하는 일, 자치력과 연대력을 신장하고 인간성에 깊숙히 뿌리 박은 생명적, 존재적 욕구와 능력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이제 그만 속도를 멈추고 느림, 무드러움, 평화로움의 성장적 감수성을 체득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욕구와 능력의 생명·문화적 경제학은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를 추구한다. 그것은 생태계의 한 거주자로서, 우주의 푸른 생명 바다의 원연에 닿을 내리는 '우주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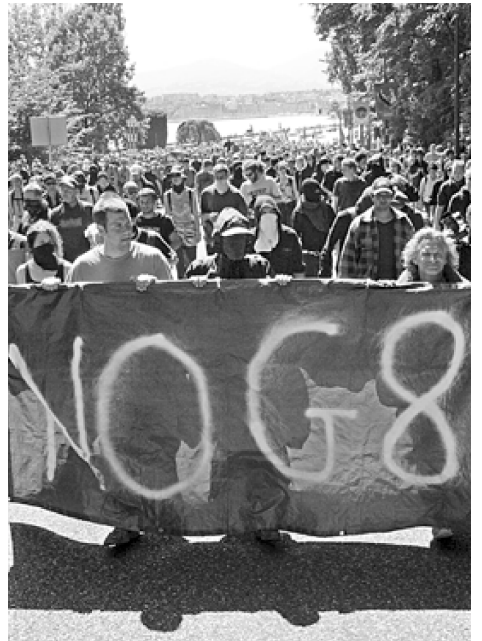
민'으로서 인간의 각성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시장을 만연의 근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시장에 고삐를 틀어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는 시장의 제도적 구조 또는 시장을 제도화하는 방식, 그 사회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형태다. 시장 사회를 넘어서는, 탈근대적인 사회통합적 시장경제(postmodern r embedded social market), 일노동 중심 사회를 넘어서는 다중(多層) 활동적(multi-active)인 문화적 사회 구성은 경제의 조절 양식으로서 시장을 필수적 구성 부분으로 포함한다.

또한 도구적 이성의 비판자들이 곧 잘 의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중 활동적인 자치와 연대의 사회로 가는 길에서 광범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배제 문제의 해결, 노동의 인간화와 참여 경제, 그리고 시간 주권-자유 시간 혁명을 근본적인 관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견해는 제로 성장론과는 다르다. 노동의 인간화와 능력의 개발은 노동자의 자발적 에너지가 성장 동력 되는 새로운 혁신주의의 문화적 경제를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하여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는 적정 성장과 동반 성장, 내발적이고 생태적인 균형 발전의 뉴 패러다임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병연 (경희대 교수·경제학)



지난해 6월 프랑스 예비선거에서 열린 선전 7개국 및 러시아(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민들이 세계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화에 대해 반대하는 '연대'는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 동학 '亂'→혁명→운동→농민혁명

### 근·현대사 시대상향 따라 교과서 기술 변화

#### 정읍서 110돌 기념제·학술회

||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10주년이다. 농민군의 첫 승리였던 황토현 전투(1894.5.11)를 기념해 전북 정읍에서는 갑오농민혁명기념사업의 주력 동학농민혁명기념제(8·11일)가 열리고 있다. 행사 중 남·북·중·일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본 '역사인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11일 열린다.

동학농민혁명이란 이름을 얻기까지 우리 교과서에 이 혁명에 대한 서술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각 시대의 역사관과 정치·사회적 민주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근·현대사만큼이나 골목을 겪었다. 유윤 관주역사박물관장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주제발표에서 18

95년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국사교과서를 시기별로 ▲1895년-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후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분석했다. 1895년 최초로 발간된 초등 국사교과서인 '조선역사' 이래 일제시대를 제외하고 1980년대 문명부 검정교과서까지는 '동학란'으로 표기하던 시대였다. 즉 '왕조시대를 반기를 들거나 기존의 체제 질서를 어지럽힌 비적'이며 '근대 사회로의 원동력'이라는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특이한 것은 '유신'의 칼날이 시퍼런 1970년대 고교 교과서에서 '동학란' 대신 '동학혁명'으로 표기된 점. 이에 대해 우 관장은 '학문적 성과가 혁명'으로 인정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지만, 학문 외적 요인으로 역사 용어가 결정됐다'며 '이는 1979년판 고교 국사교과서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110주년을 맞아 지난날 25일 농민과 학생 1000여명이 유정지에서 행차하고 있다

를 제외하고는 '농민'이라는 용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불 수 있다고 말한다. 곧 '갑오 농민전쟁의 주제 세력으로서 농민'을 배타기를 거부하고 '동학교단'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 계급적 성격을 걸러내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해 서술하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980년대 이후는 '동학운동'의 시대로, '반란'도 아니고 '혁명'도 아닌 애중간한 용어를 썼다. 5공화국이 출범하며 사범대가 시작된

'운동'이라는 용어는 '역사의 엄밀하고 표방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갑오농민전쟁을 무력화시키고 그에 대한 영정을 박제화시키는 표백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우 관장은 지적했다. 갑오 농민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가 급격히 늘어난 1980년대에는 '동학란'이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자리 잡는 등 지배적 중심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전환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임주원기자 eyed@munhwa.co.kr

## 한·중·일 3국 '자수' 모아 石人·초상화등 '얼굴'도 자수-얼굴박물관 내일·15일 개관

|| 사람의 얼굴과 자수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꾸민 전시장 두 곳이 문을 연다. 지난 2일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한 숙명여대 박물관(관장 이춘실)은 11일 오전 10시 신축이전 및 새로 개관하는 '정영양자수박물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이종 정영양자수박물관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수예술가 정영양(68)씨가 평생동안 모인 한·중·일 동양 3국의 자수 관련 유물 600여점을 지난해 숙명여대에 기증한 것이 계기가 돼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1978년 미국 뉴욕에서 '중국, 한국, 일본의 자수역사와 기법'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강의와 작품활동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동아시아 자수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해 온 정씨는 이번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수박물관의 관장도 맡았다. 자수소품과 관복, 갑주, 병풍, 혼례복, 의자와 테이블보, 흉배, 다양한 의복과 박사장신구로 구성된 정영양자수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비단실(Silken Threads)'이란 제목의 기념전을 오는 10월20일까지 연다. 중국 전국시대 동경을 비롯해 청나라 황태자의 용포와 일본 에도시대 혼례



북 동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유물이 전시된다. 02-710-9134

연극연출가 김정옥씨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조선시대 왕실 도요지로 유명한 경기 광주시 남동면 분원리에서 박물관 '얼굴(사건)'을 개관한다. 석수와 목수, 도공 등 이름 없는 옛 예술가들이 만든 석인(石人)과 목각인형, 도자인형, 사람의 얼굴을 본뜬 의왕, 초상화 등 개수가 40여년간 모은 500여점의 사람 얼굴과 관련된 유물들이 150평의 실내 및 야외 전시공간에 선보인다. 특히 이곳은 단순히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극과 영화가 동시에 만나는 퓨전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 강진에서 옮겨온 100년전의 유서 깊은 전통한옥에서 차를 즐기며 문화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꾸며졌다. 031-765-3022

최정경기자 yacho@